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4대강 녹조 해결될까

수량 관리 국토부 기능 이전
농림부 기능 이관 안돼 한계
22일 광주서 순회 토론회

하천 공사나 저수지 축조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담당했던 이원적 구조에서 하천·강 등 각 지역 물을 환경부가 전담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영산강환경유역청이 4대강(영산강·낙동강 일부)을 수질 위주로 관리해 녹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게 된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업용수 확보용 저수지·보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농림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지 않는 한 '물관리 일원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안에 대한 추진상황,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가 하천·강 관련 공사부터 수질까지 우리나라 물에 관한 분야를 담당하는 정책으로,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 물환경정책국과 합쳐 종합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된다.

이미 OECD 35개 회원국 중 영국·프랑스·독일 등 23개국은 환경부서 주관으로 물관리를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게도 통합 물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물관리에 대한 요구는 지난 1996년 불거졌다. 1991년 부산·경남 지역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에서 폐놀오염사고가 일어나고 1994년에는 낙동강 유기용제오염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1996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환경부가 통합적으로



죽산보로 인해 물길이 막힌 영산강에 녹조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었던 댐 건설 등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가 전담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해 수질 개선 분야가 강화될 예정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로 물관리를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유아무야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5월 환경부에 지시한 데 이어 7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량 확보 차원에서 댐이나 보, 저수지 등을 만들며 자연 생태계나 수질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사업'이다. 시간이 지나며 녹조 등 부작용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수문을 개방해 물이 흐르도록 방류하는 방안이 떠올랐지만 국토부와 환경부의 정책이 상충하며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영산강환경청 측은 환경부가 물관리를 전담했을 때의 장점으로 수질 개선, 수량

예측, 재해 대비 등을 꼽았다. 수질 개선은 녹조 발생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죽산보·송촌보 등의 수문을 개방하고 장성댐·나주댐의 방류량을 증가시켜 일정한 수량을 확보해 수질 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영산강환경청은 죽산보를 일시 개방해 수질·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했으며 수질 개선 효과를 얻었다. 또한 수량예측은 환경부 산하 기상청의 자료를 활용해 매년 예측 강수량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재해 대비 부분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 등과 연계해 홍수를 비롯해 수질 오염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39개 댐에서 총 60억 ㎡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에

서 수질·생태복원 기능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직강화 위주로 공사한 하천을 물이 굽이지게 천천히 흐를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상태로 복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기존 광역상수도는 국토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지자체와 관리하던 체계에서 환경부로 상수도 관리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급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뭄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인근에서 물을 끌어오는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7대 광역시에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열고 있다. 광주에서는 오는 22일 광주출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리며 김은경 환경부장관, 윤창현 광주시장, 주승용·김경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에 참여한 시민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제공>

석달간 일회용품 없이 살아 보기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도전단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5차 의제 실천사업의 하나로 광주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3달간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전단은 연령대별 모임을 통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 도전 기간 동안 '일회용품 안쓰기', '일회용품 컵과 비닐봉투 안쓰기', '모든 일회용품 안쓰기'로 단계별 도전을 진행한다.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할 예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도전자를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발대식'에서는 행사취지와 참여방법 설명,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와 도전단 배지 증정,

각오 나누기를 진행했다. 한 도전자는 "그동안 너무 쉽게 일회용품을 사용해 왔는데 막상 이제부터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이번 도전에 성공해 주변 사람들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환경 운동에 동참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새자원순환사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일회용 컵, 비닐, 그릇 등 조사대상 7개 전 품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1주일 사용량은 전국 평균 3.36개로 광주는 이보다 높은 3.88개로 조사됐다. 1회용 그릇·접시는 1주일 0.97개(전국 0.81개), 1회용 비닐봉투는 3.25개(전국 2.90개) 등이다. 또한 일회용 컵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일반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는 응답이 많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화학사고 대처 정보집' 2000부 배포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시 신속·정확한 현장대응과 피해 수습 요령, 안전조치 등을 담은 '사고대비물질 휴대용 정보집(키인포 가이드)'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보집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총 97종의 요약 정보가 담겼다. 화학사고 대응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합동방재센터, 소방서, 군, 경찰, 지자체 등 600여 개 유관기관 종사자 2000여 명에게 배포된다. 정보집에는 올해 5월 사업화구소, 실란, 브롬 등 사고대비물질로 새롭게 추가된 28종의 정보도 포함됐으며, 사고대

비물질 별 주요특성, 대응지침, 위험성, 방제요령, 인체노출 유해성, 응급조치, 대피거리 등 51개 주요 내용을 요약 수록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대응자가 조종조치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포함됐다. 또한 국내 화학물질 규제사항, 물질분류 표시, 화학 전문용어 등을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정보집은 이달 말부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에 공개돼 일반인들도 살펴볼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멸종위기 '풍란' 전남 무인도서 발견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인 풍란이 전남 지역 무인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최근 전남의 한 무인도에서 풍란 60여 개체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한려해상국립공원 섬 지역에서 80여 개체의 자생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국립공원 밖에서 자생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견된 풍란 자생지는 약 513㎡ 규모다.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인 데다 바람이 잘 통하고 수분을 얻기 쉬운 해안가 절벽이라 풍란의 생육 상태가 우수하다는 게 국립생태원의 설명이다. 풍란은 노끈 모양의 굵은 뿌리가 상록수림의 바위나 오래된 나무 표면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전남, 경남 일대 해안가에 드물게 분포한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 남획 위험이 커지면서 199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전남 무인도에서 발견된 풍란.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풍란이 확인된 무인도를 특정 도서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유역환경청과 협력해 자생지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